

조선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나라와 관계를 맺었을까요?

수업 목표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 및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이 차시는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과 대외 관계를 살펴봐도록 하였다.

- 도입**
 - 동기 유발하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 전개**
 -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 알아보기
 - 조선 전기 주변 나라와의 관계 알아보기
-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차시 예고하기

교과 역량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정보 활용 능력

지도상의 유의점

사관이 왕의 말과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왕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상상해 보게 한다.

교수·학습 과정

도입

1 동기 유발하기

- 이전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였나요?
 -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 조선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 조선의 역사를 알려면 어떤 자료를 보아야 할까요?
 - 조선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영토는 북쪽으로 어떤 곳을 경계로 삼고 있나요?
 - 압록강과 두만강입니다.
-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곳을 경계로 삼았을까요?
 - 먼 옛날부터입니다.

2 학습 문제 확인하기

조선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아보시다.

탐구해요

1

조선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나라와 관계를 맺었을까요?

2

이 시간에는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 및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유교를 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다. 유교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왕은 충성스러운 관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관리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조선 사람들은 법전을 만들고 그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 또한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하는 ‘사관이’ 곁에 있어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려웠다.

*사관: 기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역사책을 쓰는 관리를 말해요.

임금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마음으로 어진 정치를 펼쳐 온 천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임금을 부모처럼 우러라보게 해야 합니다.

— 『조선경국전』

*『조선경국전』: 조선 초에 정도전이 만들어 태조에게 올린 법전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새로 마련해야겠소.

나라 살림이 어려워니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부당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널리 의견을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국가 기록원) 조선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린 기록을 모은 역사책이다.

전개

3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 알아보기

-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유교를 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유교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강조하였을까요?
 - 백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 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 왕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조선 전기 주변 나라와의 관계 알아보기

지도+ 교과서 61쪽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 전기 대외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조선은 명과의 충돌 위기 속에서 건국되었지만, 태종 대 이후로는 명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조선은 북쪽의 여진, 남쪽의 일본과 때때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4군 6진을 개척하거나 쓰시마섬을 정벌하는 등 그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일본과는 세종 대 이후로는 대체로 큰 갈등은 겪지 않았으나, 여진과는 15세기 내내 충돌을 반복하였다.

4

한편 조선은 명, 여진, 일본 등의 주변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 나라와 국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조선 전기 주변 나라와의 관계



7

61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60~61쪽에서는 조선이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표방하였음을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한다. 이후 조선이 주변의 명, 여진, 일본 등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지도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자료 해설

교과서 60쪽의 자료는 『조선경국전』의 일부 내용이다. 『조선경국전』은 1394년에 정도전이 태조에게 지어 바친 사찬 법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용어 해설

4군 6진 세종 대에 여진을 몰아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행정 구역이다. 4군은 압록강 중상류에, 6진은 두만강 하류에 있었다.

학습 준비물(교수·학습 자료)

활동지(지도서 234쪽)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조선 시대에 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 조선은 왜 쓰시마섬을 공격하였을까요?

- 조선은 명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 대체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을 것 같습니다.
- 조선은 왜 쓰시마섬을 공격하였을까요?
- 조선을 괴롭히던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삼은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 세종 대부터입니다.

5 다 함께 활동 조선 전기 주변 나라와의 관계 이야기하기

활동 안내	조선 전기 대외 관계를 살펴보고 조선이 명, 여진, 일본과 각각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활동 방법	교과서 61쪽의 본문과 자료를 살펴보고 조선이 명, 여진, 일본과 맺은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 얻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후 학급 구성원 또는 모둠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한다.

- 조선은 명, 여진, 일본과 각각 어떤 관계를 맺었나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정리

6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과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 봅시다.
-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였습니다.

- 장간! 확인해요를 풀어 봅시다. 답 ○

7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전기 문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하기

평가 관점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과 대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나요?	상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과 대외 관계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과 대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하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과 대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교수·학습 참고 자료

자료 1 조선의 통치 이념을 보여 주는 기록

교과서 60쪽

조선 전기 정치에 대해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기록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임금의 자리는 높기로 말하면 높고, 귀하기로 말하면 귀합니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만민은 지극히 많습니다. 한 번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마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백성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해서는 안 되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꾀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복종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배반하게 됩니다. 그들이 배반하고 따르는 그 간격은 털끝만큼의 차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사로운 뜻을 품고서 구차스럽게 얻는 것이 아니요, 도를 어기어 명예를 구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얻는 방법 역시 어쉴일 뿐입니다.

임금은 천지가 만물을 생육시키는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아서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정치를 행하여, 천하 사방 사람이 모두 기뻐해서 임금을 마치 자기 부모처럼 우러러볼 수 있게 한다면, 오래도록 편안하고 부유하며 존경받고 영예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멸망하여 쓰러지는 근심을 끝내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쉴으로써 자리를 지킴이 어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선경국전』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임금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이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위에 올랐다.

-『태조실록』

자료 2 『조선왕조실록』과 사관

교과서 60쪽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역사가 담긴 방대한 기록이다. 조선은 임금이 죽으면 실록청을 세우고 그가 다스리던 때의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실록을 만드는 관리는 사관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의 말이나 행동, 임금과 신하가 나랏일을 의논한 내용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여 사초를 만들었다. 사관은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였다.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사초는 비밀로 보장되었다. 설령 임금이라고 해도 사초를 함부로 볼 수 없었다.

사관 제도는 국왕의 말과 행동, 시정의 잘잘못, 인물의 뛰어난 점과 부족한 점, 비밀에 관한 사실 등을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하여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때때로 국왕이나 권력자들이 사관을 강압하거나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 사관의 기록에 공정성이 결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관은 국왕과 집권 관료의 전횡이나 비리를 은연중에 견제하여 유교가 표방한 덕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사관」

자료 3 사관 제도를 체험해 보는 우리 반 실록 제작 학습

교과서 60쪽

수업 효과

사관 제도와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공부할 때 국어 교과와 연계하여 우리 반 실록을 제작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수업 방법

- ① 스스로 사관이 되어 우리 반에서 일어난 일을 매일매일 기록해 보도록 한다.
- ②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날 일어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뽑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③ 자신이 뽑은 사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우리 반 실록을 완성해 보도록 한다.

여진은 발해가 멸망한 뒤 한반도 북부와 현재 중국의 동북 3성 일대에 거주하였다. 그중에서도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 거주한 여진인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조선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조선은 건국할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영토를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세종 대에 4군과 6진을 개척하며 비로소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다. 그러나 여진인은 여전히 압록강과 두만강 안팎에 살며 독립된 부락을 이루거나 조선인과 같이 거주하기도 하였다.

여진인은 조선의 영향력을 인정하며 기록상 약 200년간 1,300여 회에 걸쳐 조선에 와서 조공하고, 조선의 관직과 여러 물품을 받았다. 또한 초피 등으로 조선의 농기구와 소·말 등을 교역하며 사회 발전의 기반으로 삼았다. 약탈 역시 여진인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각종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농경에 능숙한 조선인을 포로로 잡아 농사를 짓게 하거나 다른 부족에게 팔아 이익을 얻었다.

여말선초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왜구의 위협이었다. 일본과의 교섭은 왜구 금압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으며 외교와 통상은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조선의 대일 정책 목표는 남쪽 변경의 평화였고, 기본 방식은 왜구를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태조는 즉위한 직후 무로마치 막부에 사신을 보내 왜구의 금압, 포로 송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수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는 답사를 보내 포로를 송환하면서 조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선 전기 일본과의 관계를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392년에서 1419년까지로 중앙 정부 간에 국교를 체결하였으며, 왜구 진압 정책에 진력한 시기이다. 제2기는 1420년에서 1471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쓰시마섬 정벌 이후 통교 체제를 확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3기는 1472년부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기이다. 16세기 중반 이후로는 중앙 정부 간의 통교가 사실상 단절되었고, 대마도와와의 무역만이 유지되었을 뿐이다. 이 시기는 대일 통교의 변천기 내지 쇠퇴기라고 할 수 있다.

- 동북아 역사 재단 한국 외교사 편찬 위원회,
『한국의 대외 관계와 외교사 조선 편』




조선과 명은 짧은 조정 국면을 거친 끝에 양쪽 모두에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야 적대적인 언사와 행동을 멈추었다. 그리하여 15세기 내내 두 나라는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전 기간에 조선과 명의 관계가 완전히 균질적이지는 않았다. 15세기 전반에는 명이 요동 방면, 나아가 여진 집단을 향해 꾸준히 진출을 시도하고, 조선 역시 4군 6진 개척으로 대표되는 북쪽에서의 확장을 추진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1435년 이후 양국 관계는 갑자기 뜸해졌다. 이는 명이 건국 초기의 정력적인 대외 진출 기조를 철회하고 내부 지향적인 모습으로 돌아선 것, 그리고 때마침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도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 동북아 역사 재단 한국 외교사 편찬 위원회,
『한국의 대외 관계와 외교사 조선 편』

추천 도서 및 영상, 관련 누리집

-  동북아 역사 재단 한국 외교사 편찬 위원회, 『한국의 대외 관계와 외교사 조선 편』, 동북아 역사 재단, 2018.
-  문화유산 채널, 『조선왕조실록 1부: 조선의 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  우리 역사 넷 <http://contents.history.go.kr/>

1-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과 주변 나라와의 관계 알아보기

반

번

이름:

1 스스로 사관이 되어 우리 반 실록을 작성해 봅시다.

날짜	사건	평가

2 조선이 명, 여진,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관계			
내용			
조선이 얻은 것			

① -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조선 전기 정치의 특징과 주변 나라와의 관계 알아보기

반

번

이름:

1 스스로 사관이 되어 우리 반 실록을 작성해 봅시다.

날짜	사건	평가
10월 1일	준성이가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었습니다. 준성이는 매우 기뻐하였고, 친구들도 준성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성이는 평소에 양보를 잘하였기 때문에 친구들도 모두 준성이의 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던 것입니다.

2 조선이 명, 여진,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관계	 명 과/와의 관계	 여진 과/와의 관계	 일본 과/와의 관계
내용	태종 이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여진이 국경을 넘어오자 세종 대에 압록강 유역에 4군, 두만강 유역에 6진을 두었습니다.	일본의 왜구가 침입해 오자 세종 대에 쓰시마섬을 정벌 하였습니다.
조선이 얻은 것	사신을 통해 명의 문화를 들여왔을 것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을 정하였습니다.	왜구의 침입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